

## ● 법제위원회 회의 개최

치협 법제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회의를 갖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의료광고 문제에 대해 의료법과 광고법상의 불법어부 범의 등에 대해 집중 논의, 대책마련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의료광고 문제와 관련, 진료과목 표시 등에 관해 윤리위원회에 회부, 요청되는 건이 상당하다며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 향후 치과전문제도 도입과도 맞물린 점을 고려,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공중보건협의회가 요청한 공중보건의 대의원 배정 문제도 논의됐는데 각 지부를 통해 회부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하고, 대의원 배정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회원보수교육규정이 연8점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여러 교육기관의 연 상한선도 각각 조정하는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 규정 중 판공비 및 섭외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도 현실성 있게 조정에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치아손상 분류표·상해진단기준 자료를 전체 회원들에게 배부, 진단서 작성 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 ● 제2회 지부장회의 성료

지난 2월 17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지부장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이기택협회장이 전문치의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그간의 경과보고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부회장들은 전문치의제의 현재 진행상황을 지부에 내려가 대의원들에게 알리고 지부총회 등을 거쳐 치협 대의원총회 전까지 방안을 모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협회장은 “복지부에서는 다수개방형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치의제가 소수안의 기본틀에서 오차한계를 갖고 논의될 수 있도록 지부에서 도와달라”고 지부장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했다.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전문치의제 문제 이외에 상대가치수기제도의

성과와 대책, 경기지부에서 상정한 의료광고 규제완화 반대의 건과 회원 사망시 조의금 지급의 건 등이 논의됐다.



## ● 전국 시도지부 공보이사 연석회의 개최

치협 공보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전국 시도지부 공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구강보건주간행사 및 상수도 불소화 20주년 기념행사 등 치과계의 주요행사 홍보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김자학 공보이사는 장애인구강건강캠페인, 탈구치아보관액 보급사업, 아태서울총회 개최 등 일련의 치협 사업들의 진행에 맞추어 회원 및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공보위원회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각 지부 공보위원회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지부 공보이사들은 치의신보 및 협회지 제작과 관련, 앞으로 치협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에 과감히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협회지 성격규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간담회 개최

치협은 지난 2월 28일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치협 및 여러단체의 관계자에게 치협의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영식 기획이사는 전국 장애인 진료망 구축사업, 조사·연구·발간사업, 장애인 치과치료, 구강보건홈페이지 개설, 동아일보 공동 추진 캠페인 등 치협의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보고하고 참석 단체의 대표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냈다. 이날 회의에는 임형순 부회장, 김자학 공보이사, 조영식 기획이사, 조영수 치무이사, 여순상 복지부 구강보건과장, 진행근 복지부 장애인제도와장, 박종상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국제이사, 채행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공보이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